

教育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學父母의 學校 運營 參與에 대한
教師의 認識 研究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崔 慈 洋

2005年 6月

學父母의 學校 運營 參與에 대한 教師의
認識 研究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申 熙 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崔 慈 洋

崔慈洋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5年 6月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교육 자치 | 5 |
| 2.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 6 |
| 3.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능과 역할 | 11 |
| 4.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형태와 변천과정 | 13 |
| 5.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의 한계 | 20 |
| 6. 학부모 참여의 일환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 22 |
| 7. 선행연구의 고찰 | 34 |
| III.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 38 |
| 1. 분석모형 설정 | 38 |
| 2. 조사설계 | 40 |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43 |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3 |
|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3 |
| 2. 분석 결과 | 44 |
| 3. 종합 논의 | 68 |
| V. 요약 및 결론 | 79 |
| 1. 요약 | 79 |
| 2. 결론 | 83 |
| 참 고 문 헌 | 86 |
| 부 록(설문지) | 91 |

<표 차례>

| | |
|---|----|
| < 표 II-1 >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형태에 따른 장점 | 15 |
| < 표 III -1> 설문지의 문항 구성도 | 42 |
| < 표 IV-1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43 |
| < 표 IV-2 > 학부모의 학칙 제정·개정 참여 | 44 |
| < 표 IV-3 > 학부모의 학교예산·결산 참여 | 45 |
| < 표 IV-4 > 학부모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여 | 46 |
| < 표 IV-5 >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참여 | 47 |
| < 표 IV-6 > 학부모의 학교재량활동 참여 | 48 |
| < 표 IV-7 > 학부모의 특별활동 참여 | 49 |
| < 표 IV-8 > 학부모의 교과용 도서 선정 참여 | 51 |
| < 표 IV-9 > 학부모의 교육자료 선정 참여 | 52 |
| < 표 IV-10 > 학부모의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53 |
| < 표 IV-11 > 학부모의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 참여 | 54 |
| < 표 IV-12 > 학부모의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55 |
| < 표 IV-13 > 학부모의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 참여 | 56 |
| | 57 |
| < 표 IV-15 > 학부모의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59 |
| < 표 IV-16 > 학부모의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 참여 | 60 |
| < 표 IV-17 >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참여 | 61 |
| < 표 IV-18 > 학부모의 교내 사고나 민원사항 처리 참여 | 62 |
| | 63 |
| < 표 IV-20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 | 65 |
| < 표 IV-21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 67 |

<그림 차례>

| | |
|-------------------------------|----|
| < 그림 III - 1 > 분석 모형 설정 | 39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운영에 필요한 힘은 지역사회 제 집단의 교육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가장 큰 자원의 하나가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업 성취율을 높이고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학교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향되고 있다.¹⁾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들과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부모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통신이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학부모간 공식적인 접촉보다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

지금까지의 학교 운영은 주로 교육의 공급자인 국가나 학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과거의 학교 운영은 타율적, 지시적이었고 교육행정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학교 운영의 대부분이 교육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학교단위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알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요청되고 있다.

1)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 30권 제2호(99. 6), p.86.

2) 이세용, 「학부모-교사 파트너십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1.9), p.107.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교육의 공급자인 국가와 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학교 운영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교육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때 지역의 교육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일환으로, 그리고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1995년부터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공식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공동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함으로써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학교 운영에서 탈피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부모의 무관심과 참여 기회로 인해 학부모위원의 선출이 어렵고,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연수기회가 빈약하며, 회의 진행이 미숙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개별교육에만 신경을 쓸 뿐 전체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는 국가수준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학부모들은 수업의 내용이나 방법, 생활지도, 기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었으며, 따라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으로서 학부모들은 그 참여형태

가 지극히 소극적이어서 단순한 재정지원자 정도에 불과하여 올바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참여의식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교육현장으로 끌어들이 학교경영에 참여시키고, 교육활동 현장에서 함께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며 아울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식을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한 주체임을 자각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공동 노력함으로써 학교교육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봄으로써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를 포항과 경주 지역 소재 중등학교에 한정하여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관련 이론과 외국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교사를 대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국내의 선행연구 논문 보고서와 각종 도서를 참고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세기는 지식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교육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21세기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 이에 학부모는 이제 더 이상 비판자나 참관자이기 보다는 직접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실천자이어야 하므로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할 내용은 교육 자치,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의 필요성,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능과 역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형태와 변천과정,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의 한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 목적, 구성, 기능, 외국의 제도,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3) 손준기,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4.

1. 교육 자치

학부모와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사회단체들의 교육 참여는 학교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는 지역사회 및 가정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으며 친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를 대비한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학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넓은 의미의 교육자치제는 중앙에서의 교육체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전제로 하고 논의되는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행정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기구와 시책을 의미하는 것이다.”⁴⁾ 라고 지방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 분리 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있어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⁵⁾

또한 윤정일은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됨과 동시에 지방교육이 중앙교육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을 말한다.”⁶⁾ 라고 교육자치의 의의를 정의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교육자치란 넓은 의미에서는

4) 김종철, 한국교육정책 연구(서울:교육과학사, 1990), p.86.

5) 정태범, 교육행정학(서울:정민사, 1996), p.208.

6) 윤정일, 교육행정학(서울:세영사, 1999), p.274.

중앙에서의 교육체제를 포함하지만 보통 교육행정의 지역 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를 기본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는 중요한 원리가 네 가지 있는데 지방분권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 주민자치의 원리(민중통제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 자율화, 전문화,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발전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교육 이해당사자들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 민법상의 보호·양육권과 헌법, 교육법상 부모의 교육 의무는 어린이·학생에 대해 교육의무를 이행할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⁷⁾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도 어린이의 이익을 위하여 교원과 부모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⁸⁾ 이를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 운영에 대한 참가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참여의 문제는 그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Conway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문

7)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67항에 규정하고 있다.

8) 서정화박설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중심책임경영제 활성화 방안」, 교육연구논총 제13집,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1996), pp.79-80.

제는 지난 수십 년 간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의 하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교육조직에 있어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을 그 속성에 따라 다시 ‘학교 내부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과 ‘학교 외부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학교 행정가가 교사, 학생들과 더불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에는 학교 행정가가 시민 연대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⁹⁾

Dacher와 Wilpert는 교육조직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 의 유형을 참여의 정도, 내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 의무적인 참여결정 대 자발적인 참여결정이다. 먼저 의무적인 유형은 학교 내부와 외부의 참여결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학교 내적인 유형으로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이 있고, 외형적 유형으로는 주나 연방 또는 교육위원회의 규정이 요구되는 자문위원회 등이 주된 예가 될 것이다. 자발적인 유형은 교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위원회나 집단 형식의 자발적인 참여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공식적 참여결정 대 비공식적 참여결정이다. 공식적 참여결정은 노조, 각종 위원회, 정당 등과 연계한 결정이 포함될 것이며, 비공식적인 참여결정은 부수적이고, 일시적이며 약식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 직접적 참여결정 대 간접적인 참여결정이다. 직접적인 참여결정은 전체 그룹이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간접적인 참여결정은 각 집단의 의사를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를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¹⁰⁾

학교경영에 있어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교장과 교사, 학생, 혹은 학부모가 사안에 따라 참가가 공유된 상태에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결정하

9) 상계논문, p.85.

10) 김홍주,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풀뿌리 교육자치문화의 형성」,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연수자료, 경기도교육청(1998), p.4.

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leeter와 Grant는 학부모 참여의 개념을 참여의 정도와 수동적, 능동적 정도에 따라 정보청취형, 조력자형, 구경꾼형, 협력적 조력자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Henderson 등은 많은 교육가들이 학부모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학부모 참여를 다음과 같은 학부모들의 역할을 규정해 봄으로서 정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¹⁾

첫째, 교육 동반자로서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동반자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둘째, 협력자와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한다. 셋째, 청취자로서의 역할이다. 부모는 학교경영 그리고 자녀의 학습과제 수행과 성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며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후원자로서의 역할이다. 부모는 교사, 학부모 조직 등에 자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조언자 및 협력적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학교 교육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는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부모 참여란 학교교육의 청취자, 후원자, 협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행정이, 교사들과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교육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 참여가 학교교육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는 Bloom, Griffore & Boger, Lareau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의 참여가 학생들의 성취를 증진시키는데 기

11) 상계서, p.9.

여하며, Bauch & Goldring 등에 의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록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키고 학교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orton은 학부모의 지나친 참여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Conway는 주민 참여가 질 높은 의사결정과 학교에 대한 협조를 증대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¹²⁾ 이것은 학부모의 지나친 참여 또는 적절치 못한 참여가 오히려 참여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참여는 참여의 내용, 정도, 범위, 방법 등이 반드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Gorton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참여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참여는 참여에 대한 무관심에 못지 않게 학교 경영자에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부모참여는 학교교육의 질과 교사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과잉 참여의 주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경영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의 목적 달성 및 의사결정의 민주화 그리고 구성원들의 만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참여의 증대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 과정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는 참여의 범위, 참여의 정도, 참여의 내용 등에서 적절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학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구성인들의 사기도 제고시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도 정착될 수 있도

12) 서정화박설아, 전계논문, p.85.

13) 서정화박설아, 전계논문, p.85.

록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 참여는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리자로서 교육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로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을 갖고 학생에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바람직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활기차게 하며, 학습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는 주민자치·주민통제·주민책임의 민주화에도 공헌할 수 있다. 주민, 학부모, 교사가 지역사회 학교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방식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민주화는 민주사회 구현의 가장 기초 단위이고 기본적인 과제이며 민주주의 성패는 민주주의 기초 훈련장인 학교교육에 달려 있다고 볼 때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의 의의는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가정·학교·사회의 협력적 선도 기능도 담당한다.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상보, 통합적 제휴 관계를 맺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교실의 학습을 가정,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이들을 다시 교실로 끌어들여 지역사회 전체가 교실을 만들어가며, 지역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 사회 건설에 기여하여 가정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와 협력적 유대 강화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학부모 집단의 의사를 통일시켜 학교의 의사 결정이나 교육 활동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부모 집단의 교육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또는 학부모와 학교와의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다.

3.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능과 역할

학교와 가정,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참여는 그동안 학교가 요청해야만 참여하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 가정과 학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훌륭한 교육인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은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에서 보다 풍부하고 충실하며 알찬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며 지속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Chubb와 Moe는 교사에게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학부모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학부모의 참여는 학부모를 단지 학교재정의 후원자 또는 학교 교육활동의 조력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와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교육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본다.

학부모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참여의 역할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일,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각종 학교 행사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을 도와주는 일로는 수업 자료 제작의 보조로 학습 자료 복사, 정리, 자료 배치, 수선 등을 들 수 있다. 최신의

14) 서정화박설아, 전개논문, p.84.

15) 경기도교육청, 열린시대 열린학교 운영(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장학자료, 1998), pp.127-128.

자료 철을 개발·보관하여 교사 혹은 학교를 돕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
이므로 이를 학부모가 맡아준다면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맡을 수 있으며, 기능의 결손을
수행하도록 개인 지도를 통하여 교사를 대신하여 학생을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생활지도는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학교 주변 폭력배 예
방·단속활동, 학교 주변 정화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적 계도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학교나 교사보다 학교주변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학부모
들이 자원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한다면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이
며, 학부모들이 진심 어린 계도를 한다면 학교주변의 정화는 단시일 내에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부모 중에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기능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들의 경력과 기능을 살려 학생들의 클럽활동
을 직접 지도하거나 지도방법을 교사에게 전수시킬 수도 있다. 넷째, 그 외에
도 학교의 각종 행사에 노력봉사도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도 할 수 있
다. 소풍이나, 수련회 활동, 체육대회 등의 학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
은 일손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될 수
도 있다. 학부모들이 직접 노력봉사로 도울 수도 있으며, 행사를 위한 조언이
나 자문에 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는 학부모를 잠재적인 교육 전문가로
보고, 그들을 교사로, 의사결정자로, 파트너로 인식함으로써 학교나 교사의
인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같이 협력·지도하여 교육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다양한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도적으로 교육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할수록 교육의 질은 강화된다. 즉,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교육

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된다.

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학부모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그들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학부모 자신들에게는 자녀들 교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가정 내 학습 활동에 대한 교사들과의 사전 약속을 통해 자녀들의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교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학교 방문 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학교가 자신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 학교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4.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형태와 변천과정

Epstein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각각의 참여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표Ⅱ-1>과 같이 제시하였다.¹⁶⁾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학교의 일을 돕는 자원인사로서의 역할, 학교와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는 학습 지도자로서의 역할, 다른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역할로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학부모 참여의 장점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또는 학교도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학부모 참여의 유형

16) 서정화박설아, 전제논문, pp.86-88.

중 가장 공식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대표로서의 역할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는 것 등도 학부모 참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참여 형태에서 볼 때 우리의 학부모 참여는 주로 부모 역할과 의사소통 역할, 자원인사로서의 역할, 가정에서 학습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 역할도 분명한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학부모 참여와 더불어 학부모가 학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가정의 협력적 참여 형태가 추진돼야 한다. 이것은 학부모가 교육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며 나아가 효과적인 교육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 또는 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생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표 II-1 >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형태에 따른 장점

| 형태 | 역할 | 장 점 | | |
|------------------|-----------------------|--|--|--|
| | | 학 부 모 | 학 생 | 교 사 |
| I 형 부모역할 | 가정을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 ·부모로서 자신감 갖기 ·이동발달에 대한 지식 쌓기 ·가정이 학습환경임을 이해하기 | ·안전하게 보호받기 ·부모에 대한 존경심 ·학교에 잘 다니기 ·학교의 중요성 인식하기 | ·가정의 분위기, 학생의 재능,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등을 이해하기 |
| II 형 의사소통역할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개발 |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교사와 상호작용 ·아동의 발달 관찰 | ·교사-학부모 회의 및 회의 준비에 참여 ·보다 나온 프로그램 선택 | ·학생의 문제나 발달에 대한 정보 얻음 ·학부모 조직을 통해 학부모와 의사소통 역할 |
| III 형 자원인사역할 느낌 | 학교의 일을 돕기 | ·교사의 업무, 학교의 프로그램 이해하기 ·교사와 친밀감 형성 ·학교와의 접촉을 편하게 | ·개인의 관심분야를 하여 학습이 향상됨 ·어른들과 쉽게 상호 작용 | ·학부모의 관심 및 돕고자 하는 의지 알기 ·프로그램 준비에 참여시켜 프로그램 준비도 높이기 |
| IV 형 가정의 학습지도자역할 | 가정에서 자녀를 돕기 | ·가정에서 자녀를 학생으로 인식하기 ·학교의 학습을 돕기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 | ·숙제 끝마치기 ·학습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 형성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익숙하게 습득하기 | ·학생의 학습을 완성하고 강화시키는 학부모의 노력에 감사하기 |
| V 형 학부모 대표역할 | 학부모 대표로서 회의 소집하고 훈련하기 | ·학교정책에 관여하고 정책결정에 영향 미치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갖기 | ·학부모의 권리수호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기회 갖기 | ·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학부모와 협력함 ·정책개발시 학부모의 의견을 이해하기 |

Macbeth에 의하면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⁷⁾ 제1단계는 자급자족하는 학교로서 학교와 학부모는 공식적

17) 김종철, 전게서, p.86.

인 경우에만 접촉하고 학부모의 선택이나 자문은 거의 없는 단계로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은 온전히 교사의 영역단계이다. 제2단계는 헌신의 단계로 학교의 행정가가 학부모와의 연계와 자문을 촉진하는 단계로서 가정에서도 교수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체제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헌신증가 단계로 학교행정가가 학부모와의 연계와 자문을 촉진하는 단계로서 가정에서도 교수의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체제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단계로 공식적으로 학교에 모든 가정이 포함되는 단계로서 가정의 학습도 교육의 일부이며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단계,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하고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단계(학교-가정의 협력)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우리의 학부모 참여는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대표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3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관계는 학교는 모든 가정이 포함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의무가 되는 제4단계이다. 학부모 참여가 이러한 과정으로 진보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을 공급하는 측과 학부모의 사고가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부모 참여 조직이 여러 형태로 존속하여 왔다. 이를 연대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학교 후원회(1945-1953)이다. 8.15 해방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취학 인구에 비해 수용할 교육 시설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18) 박불휘, 「제자리를 찾아야 할 육성회」, 우리교육(1990) 6월호 pp.190-198.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교 후원회의 성격을 띤 각종 학부모 단체가 발족되어 1953년까지 유지되었다.

1947년 당시 교육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5.5%에 불과하였으며 초등학교비 중 공공비 부담이 30% 미만이었고 학교경비의 70%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였다. 전쟁 재해 학생 후원회(1946), 사범학교 후원회 연합회(1948), 서울시 중등학교 후원회 연합회(1949), 국민학교 후원회 연합회(1953) 등의 학부모 후원회가 이때 발족하였는데 이 후원회들은 학교의 물질적 후원에 중점을 두고 교실의 확보와 교원의 생계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후원회들은 부족한 교육시설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학교 행정 간섭이라는 문제와 학교간의 격차라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둘째, 사친회(1953-1962)이다. 학교와 가정사이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교육까지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교육 사조에 따라 1953년 문교부는 기존의 후원회를 사친회로 개편하여 1962년까지 이어졌다. 문교부가 제시한 사친회의 기본 성격과 운영 요강에 의하면 사친회는 단순한 후원 단체가 아니라 ‘교육단체’였다. 또한 조직이나 운영도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민간단체로서 학교장이 사친 회장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사친회의 주된 목적은 가정, 학교, 사회에 있어서 학생의 보호 및 지위 향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협력, 학교와 가정의 교육적 환경 정비, 교육성과 증진, 학생과 학교직원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 향상 등이었다.

셋째, 기성회(1963-1970)이다. 1963.1.14일에 문교부 훈령 제104호로 기성회 준칙을 제정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지시함으로써 각급 학교는 사친회를 해체하고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기성회 운영의 목적은 학교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학교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 운영을 지원함으

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데 있었다. 설립 초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성회비가 부족한 시설의 확보에 주로 쓰여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교실 3,092실을 지었으며 서울의 경우 동기간에 약 23억원의 회비 총액을 거두었는데 그 중 65%가 시설비로 쓰였다. 그러나 1964년 이후에는 교원의 봉급 문제가 심각하여 설립 목적과는 달리 전체 회비 중 60%를 교원 후생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회비징수를 교사 책임제로 함에 따라 사제간에 금전거래가 만연하게 되었고 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가 결구롭게 발전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 종래 사친회에서 해결해 주던 시험지 대금, 등 사용품비, 기타 비품비 등 부수적 경비가 끊기자 기성회비 외에도 각종 잡부금(40여종에 달함)이 징수되어 학부모에게 이원적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기성회비나 잡부금은 학생을 위한 경비로는 얼마 지출되지 않았고 이러한 잡부금 징수에 고지서라는 형식을 취하지도 않았으며 형식적이나마 기성회의 승인 절차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자 기성회는 다시 해체되기에 이른다.

넷째, 육성회(1970-1995)이다. 1969년 말 문교부는 ‘잡부금 양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1970년 2월 ‘학교교육 정상화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성회를 해체시키고 육성회를 발족시켰다. ‘학교 교육정상화에 관한 지침’의 두 번째 항목에는 ‘국가재정 형편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때까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협찬, 부담하는 방안을 승복한다면 이를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1970년 3월 육성회가 발족되어 지금까지의 기성회비와 40여 가지의 잡부금을 육성회비로 일원화하고 어떤 형태의 잡부금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친회가 ‘교육단체’였던 반면 육성회는 설립 취지 자체가 재정적 후원단체의 성격에 국한되었다. 육성회 운영의 대강은 첫째, 회비 기준액은 시·도 교육감이 학부모 부담 능력, 당해 지역 생계비, 물가 상

승률을 감안하되 학부모의 소득 계층에 차등 책정한다. 둘째, 교사는 회비 징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 육성회 예산은 교사생계 보조에 60%, 학교 운영비에 36%, 학생복지비에 4%를 사용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육성회는 출범한지 불과 1개월만에 모순 많은 운영 지침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효과의 퇴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금전 관계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육성회비를 학부모가 직접 학교 서무에 납부해야 하고 교사는 회비 독촉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후 육성회는 여러 차례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왔는데 육성회의 발족 후 금지된 잡부금의 부활, 육성회 찬조금의 과다 및 강제 징수, 육성회 찬조금의 부당한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 의해 육성회 찬조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었다. 육성회비는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로 전환되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 조직되어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아직도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 1988년부터는 지방 자치제와 교육 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한 자율성 배양을 위해 종래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던 육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위원회에 일임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회이다. 어머니회는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에서 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1983년 6월 문교부 공문으로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조직 운영을 권장한 결과 설립된 것으로 이듬해 말에 전국 초·중·고교의 88%인 9,250개에 조직, 운영되었다가 제5공화국의 마감과 함께 어머니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육성회와 함께 학부모회의 양대 지주를 구성하고 있다. 육성회비가 물질적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반면, 어머니회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육성회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부모조직의 변천과 더불어 현재에도 단위학교에는 다양한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육성회,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은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기타 특정의 학부모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것으로는 축구부원 학생 학부모들이 결성한 축구부 후원회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조직 중, 육성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사립학교에 남아 있는 조직으로 아직까지 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나머지는 단위학교에 따라 조직여부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학부모회 규약이나 기타 조직 내부의 규약에 따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며, 특정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는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5. 학부모 학교운영 참여의 한계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에는 학부모 자신의 문제, 행정가나 교사의 문제, 국가차원의 문제 등이 있다. 학부모 참여의 문제는 먼저 학부모, 학교, 국가 모두 학부모가 교육의 소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가와 학교도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또 일부 교육 행정가와 교사들은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그들의 권리와 전문성을 간섭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즉 교육은 교육자들만이 담당해야 할 신성한 권리라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

이 무엇인지 판단하거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의 과정 등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 또 학교 행정가와 교사는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힘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즉, 학생들과 갈등이 있거나 학생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부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야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¹⁹⁾

이것은 물론 학교의 학부모간의 접촉을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적인 문제를 학교가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 부분적으로는 과거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치맛바람이 횡행했던 것을 경험한 교사들이 이런 현상에 대한 인간적인 혐오감에서 학부모 참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²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학부모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가 그들의 참여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학부모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교의 실천 활동과, 교사의 세계와 학부모 세계가 서로 다른 데서 유발되는 상호 이해의 벽이 가로놓여 있고, 상호간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가 효과적 교육 활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교육 용어를 사용한 가정 통신문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가정의 학습환경이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또, 학부모의 태도, 능력 및 다른 가사활동 및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적 제

19) 서정화박설아, 전개논문, p.85.

20) 이진분,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제언」, 새교육(1991), 7월호, p.50.

약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교육은 전문가인 교사의 몫이고 자신들은 지식과 능력이 없으며 더욱이 직업상 교육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참여의 기법 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 학부모 참여를 가로막는 경우도 많다. 학교와 가정간의 의사 소통은 일방적이며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학부모들에게 연락하는 학교의 정책이나 의사 소통의 관행은 학부모들과의 의사 소통 기회를 극히 제한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학부모들로 만들어 왔다.

교사와 학교장의 부정적 태도도 간과할 수 없다. 학부모 참여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실패의 두려움이나 상호 비판에 의해 서로 상처를 입고 싶지 않으며, 자신 없고 불안정한 교사와 교장들은 부모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을 무관심하다고 간주하거나 학부모들의 교육참여가 학생들의 교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접촉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문제는 그들 자신들이 잘못이지 학교 또는 교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육자들의 태도는 학교 가정과의 협력 관계를 저해하고 있다.

6. 학부모 참여의 일환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미래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교육의 공급자인 국가와 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사, 학생 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5조의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를 포괄한다고 하겠다.²²⁾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기구이다.²⁴⁾

21) 교육부, 전게서, p.9.

2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초창기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의 제27조~제31조, 그리고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두었다.

2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조사연구(1998), pp.10-11.

24)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나에 대한 논란이 시행초기에 많이 제기되었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그 성격을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은 ‘재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의결과에 대한 효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순히 심의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적 요소가 가미된 심의기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여 일선학교에서 논쟁이 계속 발생하게 되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재심의 의결정족수를 일반정족수보다 엄격한 특별정족수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²⁵⁾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목적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육성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사친회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공식·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학교 교육에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나 학생 교육을 위해서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편의 위주의 학부모 모임 운영, 학부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순수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다.

25)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의 하나인 ‘심의기구’와 ‘자문기구’간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학교장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칫 자문기구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는 학교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심의기구는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간의 차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심의 회부 여부가 재량이나, 아니면 의무이냐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들의 실질적 참여 범위 협소 및 무관심, 적극적 유인책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학교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의 참여 범위를 넓혀 학부모 및 지역 사회가 학교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문민정부는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²⁶⁾ 1991년 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학교 운영을 비롯한 교육활동 전반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체감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학교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체계적인 의견 반영으로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이해 집단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책임을 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즉,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²⁷⁾

26)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보고서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과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육계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등의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를 지향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학교운영을 실질적인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의 권한을 갖고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정착과정

초·중등교육법²⁸⁾에 의하면,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국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공립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립의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²⁹⁾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고른 참여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의 정수는 7~15인의

27)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1998), pp.2-5.

28) 경기도교육청, '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안내자료, 장학자료(1998), pp.19-22.

2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는 '위원의 선출 등', 제60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61조는 '시정명령', 제62조는 '조례 등에의 위임', 제63조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는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 일반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하며, 실업계학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각각 10%씩 줄이는 대신 지역위원을 30%~50%으로 구성하되, 지역위원의 50% 이상을 기업경영자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발표한 이후 그것에 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시범 실시안을 확정 발표하여 1995년 2학기부터 지역·학교·급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유형을 2-3개로 나눠 서울시, 광역시·도의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96년 1학기부터 시·지역 전체 공립학교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98년 1학기에 이르러 읍·면 지역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³⁰⁾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지만 아직도 학교의 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차이, 학교 급 별간의 차이 등 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목적을 만족하게 달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의식 강화가 이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에 의하면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

3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조사연구(1998), p.2.

항은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과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기능으로 선택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 선정,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교급식 운영 등을 심의한다. 둘째,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학교운영 지원비 부담액 및 용도 결정 기능으로 육성회의 폐지와 함께 폐지된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대체하되, 그 규모와 사용 처 등을 결정하는 기능이다. 셋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결정 기능으로 학교의 장기적 발전 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넷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기능으로 학생 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에 제안하는 기능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심사기능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건의나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에는 이를 학교나 관할 교육청에 제안하는 기능이다.³¹⁾

학교 운영에서는 학교장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권자이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 지역인사위원이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운영

31) 김민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7), p.25.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그 사유를 서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²⁾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들을 심의하는 법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1) 미국³³⁾

① 설치 목적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학교 자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학교 자치란 교육행정부의 통제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단위학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교의 내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교의 외적 사회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권고하거나 제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하는 등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환경과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결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권고나 제안을 하는 결의 기구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들간에 공유된 교육방침을 통해 바람직한 학습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 결정기구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학교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지역사회 및 교

32)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1998), p.8.

33) 이충원, 외국의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충북교육위원회 토론자료, 2000), pp.14-20.

육청의 지원을 구한다.

셋째, 학교의 교육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다.

넷째, 관계법률, 규정 및 규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결정, 학습자료의 선정, 특별프로그램의 개설,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 교육향상에 적합한 문제들에 관한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학교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방안과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②구성

위원회 구성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이며 정규교사 이외에 임시교사, 서무직원과 고용원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 학교 후원기업대표, 지역사회 대표 학생도 1명 참여하고 있다. Seattle시 교육구의 경우 위원정족수가 15명, Mukilteo시 교육구는 15명, Shoreline시 교육구는 12-16명이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의 채용, 교사, 임시교사, 서무직원, 고용원의 채용, 학교예산, 학교 목표 설정과 학생 생활지도 등이다. 이것 이외에도 교직원의 인사 평가도 담당한다.

(2) 영국³⁴⁾

① 설치 목적

단위 학교의 고유관리에 있어 그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따라서 영국의 단위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교육청과 교육과학성이 정한 기본적인

34) 상계서, pp.29-35.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협의하거나 스스로 정한 독자적인 재량권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재량권 내에서 학교 운영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학교관리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 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1986년 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교장, 교사위원, 교육청 임명 위원, 선출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9-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600명 이상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의 경우 총 위원 수는 19명이며 학부모 위원이 5명, 교장1명, 교사위원이 2명, 교육청 임명위원 5명, 선출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의를 주선하고 의사 진행, 자문을 해주는 서기가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교육과정에 대해 교장, 교사, 위원,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위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되고 그 운영이 잘 되도록 교장을 도와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은 국가 교육과정과 종교 교육이고, 중학교의 성교육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의 심의, 예산관리와 재정운영, 교직원 임명 관리 해임(교장 임명, 교감 임명, 교사 임명), 정보의 제공(학교안내 책자발간, 연례보고서 발간), 장학감사, 학교규칙의 제정, 학생들의 징계 결정, 학사일정의 결정 등이다.

(3)독일³⁵⁾

① 구성과 운영

학교협의회는 최소 14명의 교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다. 학교협의회의 의장은 단위학교의 교장이 당연직이며, 부의장은 학부모 대표가 된다. 학교협의회는 교사 대표 6명,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3명, 등 11명으로 구

35) 상계서, pp.45-48.

성한다. 단 학생회가 없는 경우 학생대표 없이 학부모대표 5명만이 학부모회가 없으면 일반 학부모대표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심지어는 주 학교위원회에도 학생 8명이 참여하게 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교협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여야 할 안건 등은 비밀을 유지해 줄 의무를 갖는다. 만일 교사가 비밀을 유지해야 할 안건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타 학부모의 경우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동의로 정직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학교협의회는 한 학기당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는 적어도 3분의 1의 제안으로 소집된다.

②기능

학교협의회는 학교경영,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개 그룹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학교협의회, 교사협의회와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교육문제 특히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 진급 등에 관한 제안권을 가지며, 특히 다음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하게 된다.

- 학교 기숙사 규칙의 제정
- 학급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 학교의 규정과 행정 규정의 일관성 있는 실행 결정
-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정학, 제적 등)
- 학교 시설 설비의 확보와 설치
- 시설 및 그 사용 청구
- 학교 이름의 부여

- 학생 진급에 관한 문제
- 소풍, 도보여행, 수련회, 산업시찰, 박물관 견학 등과 같은 학교 행사
- 동호인 활동(서클모임)등

(4) 프랑스

교육부가 국가의 교육 목적 및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을 설정하는 책임도 지고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교육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수상이나 다른 장관들과 같이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시도된 주요한 교육 개혁의 동향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에는 베이루(Bayrou)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새로운 계약이라는 슬로건하에 학생의 필요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을 3주기(관찰 적용주기, 중심주기, 진로탐색주기)로 편성하고 부진학생 지도와 진로 지도를 강화하였다.

1996년에는 포루위원회가 쉬락(Chirac)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학교 교육 개혁에 관한 국민 투표”의 실천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에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지식 갖추기”와 학습부진아의 최소한을 위한 “리듬을 고려한 학습 활동”이었다.

1997년 2월에는 대학 교양학부의 개편, 전과제도 도입, 교수 충원, 대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통해 대학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베이루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4만 명의 교원증원, 교육부의 관료주의 지양, 인문고교의 기술 교육 강화 등이었다.

1998년에는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며, 전체 교사의 40%가 참여한 전국적인 교사 파업을 야기시킨 바 있다.³⁶⁾

(5)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학교 경영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이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학교단위 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 조직, 학교운영위원회가 재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서로의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구성원의 자치성에 입각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와 같은 관(官)주도에 인해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학부모와 국민 전체가 교육의 공익적 본질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을 전제로 자치의식에 기초한 학교 운영 참여가 이루어져야겠다.

7. 선행연구의 고찰

36) 백종연, 주요국의 교육 행정 제도와 교육 개혁 동향 (서울: 교육과학사, 2000), 342.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은희는 서울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실태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학부모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사는 높는데 비해 실제 참여도는 낮았다. 둘째,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사와 상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부모가 갖는 부담, 참여 기회의 부족, 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제언으로서 첫째,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고학력 학부모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자원인사를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개인적 관심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즉,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³⁷⁾

김영하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의 근원은 교사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입시준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자기 자녀만을 편애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이기주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욕과 태도가 낮아 각종 학부모회가 유흥을 위한 모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³⁸⁾

정현웅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연구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37) 김은희, 「국민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4).

38) 김영하,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 지원체제 조성, 한국교육개발원(1994), pp.29-30.

응답학부모들이 학부모위원들의 전문성 부족(56.5%)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학부모위원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가 빈약하여 학교운영과 관련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각종 회의에 소극적인 활동(36.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41.9%)와 정부와 학교의 홍보강화(31.3%와 17.5%)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⁹⁾

염철인은 서울시와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20개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는 법규적 내용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가 잘 모르는 편이며, 특히 일반 학부모의 인지도가 낮았으며,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아직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둘째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 교원(61.7%), 학부모(81.5%)가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의 기능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으나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상당수가 응답하였다. 넷째,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 아직 모집단이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과 학부모 90% 이상이 참가가 필요하다고 했고, 방청의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⁴⁰⁾

유현숙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경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은 첫째로 자녀의 교육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 둘째는 자녀들을 위한 학교경영에 적극 협력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 셋째는 학교경영, 자녀의 학습과제 수행과 성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며 성장발달에 협력하는 것, 넷째는 학부모 조직 등에 자발적인 지원을 제

39)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8).

40)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6).

공하는 것, 다섯째는 학교교육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¹⁾

김인길의 연구는 첫째로 학교, 학년, 학급 등 각 수준별 학부모 회의의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에 소집하는 등 운영의 모를 살려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교육이나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셋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일반인들의 참관 기회를 확대해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⁴²⁾

이영엽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집단의 기대수준과 수행수준에 있어서는 학교장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부모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의사결정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즉,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회의진행,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주요 심의사항에 좀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출할 수 있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활동이 과거에 비해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41) 유현숙 외,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체제 개선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1994), p.101.

42) 김인길,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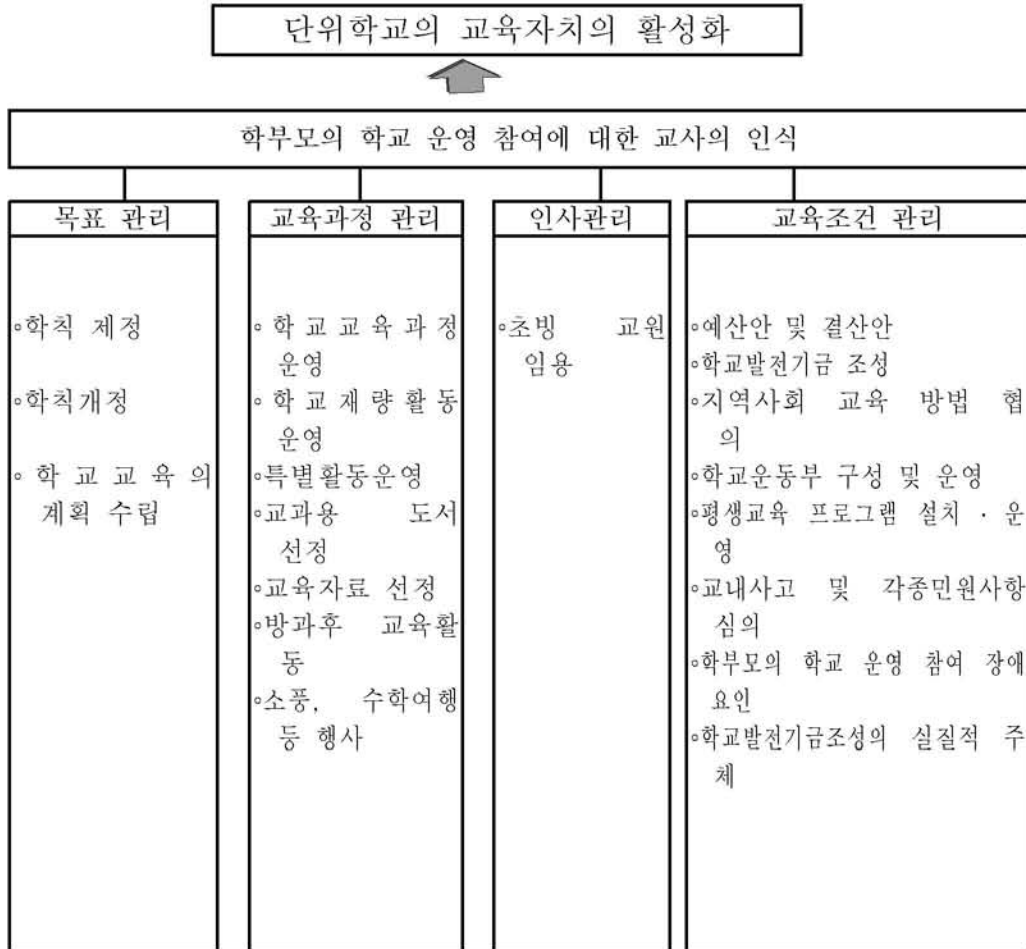
43) 이영엽,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집단의 기대수준과 수행수준 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7).

이해 부족이나 편협된 사고,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연수 기회 빈약,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미흡, 학부모위원들의 대표성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의식이 강화되면 될수록 학교교육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Ⅲ. 분석모형 및 조사설계

1.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 그림 III - 1 > 분석 모형 설정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교사나 학교장이 이 요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만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요구는 높으나, 교사나 학교장의 인식 정도와 수용태도가 부정적이라면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또, 교사나 학교장의 인식 수준이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더라도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학교 운영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서 ‘공동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현재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요구와 학부모의 운영 참여 요구를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해 보는 것은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업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것, 동료의 결정에 따라하기를 바라는 것, 행정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과업의 성격에 따라 학부모의 참여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지나친 참여나 간섭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교육자치와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관련 이론과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경주, 포항시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대상자 180명을 표출하였으며, 설문지 배포 및 수집기간은 2005년 4월10일부터 5월6일까지 우편물로 송부하였으며, 응답해 준 설문지를 받아 본 결과, 162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성별, 연령, 경력에 따라 문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요구에 대한 설문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후, 학부모의 참여 영역과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요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지를 <표 III -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목표관리, 교육과정 관리, 인사관리, 교육조건 관리 등의 하위변인에 따라 작성하였다.

< 표 III - 1 > 설문지의 문항 구성도

| 구분 | 하위 변인 | 내용 | 문항 번호 | |
|---|----------------|--------------------|-------------|----|
|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식 조사·분석 | 목표 관리 | ° 학칙의 제정 및 개정 | 1 | |
| | | ° 학교교육계획 수립 | 3 | |
| | 교육 과정 관리 | °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 | 4 | |
| | | ° 학교재량활동 운영 | 5 | |
| | | ° 특별활동 운영 | 6 | |
| | |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 7,8 | |
| | | ° 방과후 교육활동 | 9 | |
| | | ° 소풍,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 10 | |
| | | ° 방학중 교육활동 | 11 | |
| | | ° 학생수련활동 | 12 | |
| | | 인사 관리 | ° 초빙교원 임용 | 13 |
| | | | ° 지역사회 교육방법 | 14 |
| | 교육 조건 관리 | ° 예산안 및 결산 | 2 | |
| | |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5 | |
| | | °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설치·운영 | 16 | |
| | | ° 교내사고 및 각종 민원사항 | 17 | |
| | | ° 학교발전기금운영의 실질적 주체 | 18 | |
| | | ° 학교운영위원장의 책임자 | 19 | |
| | | ° 학교운영위원 운영의 장애요인 | 20 | |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학교 운영시 학부모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과 t-test(검증)를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성 별 | 남 | 61 | 37.7 |
| | 여 | 101 | 62.3 |
| 연 령 | 30세 미만 | 9 | 5.6 |
| | 30~40세 미만 | 44 | 27.2 |
| | 40세 이상 | 109 | 67.3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15.4 |
| | 10년 이상 | 137 | 84.6 |
| 계 | | 162 | 100.0 |

총 162명 중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6.23%로, 남자교사 37.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6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30~40세 미만

27.2%, 30세 미만 5.6%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 교사가 84.6%로, 10년 미만 교사 15.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분석 결과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1) 학부모의 학칙 제정·개정 참여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과 같이 전체 평균이 2.90으로, 교사들은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학부모의 학칙 제정·개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85 | 1.36 | -0.33 | 0.739 |
| | 여 | 101 | 2.92 | 1.07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04 | 1.07 | 1.12 | 0.264 |
| | 40세 이상 | 109 | 2.83 | 1.23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96 | 1.17 | 0.30 | 0.766 |
| | 10년 이상 | 137 | 2.88 | 1.19 | | |
| 전 체 | | 162 | 2.90 | 1.18 | | |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부모의 학교예산·결산 참여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와 같이 전체 평균이 3.08로, 교사들은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학부모의 학교예산·결산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21 | 1.25 | 1.12 | 0.265 |
| | 여 | 101 | 3.00 | 1.03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19 | 1.09 | 0.86 | 0.392 |
| | 40세 이상 | 109 | 3.03 | 1.13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08 | 1.22 | -0.01 | 0.999 |
| | 10년 이상 | 137 | 3.08 | 1.11 | | |
| 전 체 | | 162 | 3.08 | 1.12 | | |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

는 10년 미만 교사와 10년 이상 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학부모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여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과 같이 전체 평균이 2.80으로, 교사들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부모의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82 | 1.20 | 0.21 | 0.836 |
| | 여 | 101 | 2.78 | 0.9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08 | 1.02 | 2.39 | 0.018* |
| | 40세 이상 | 109 | 2.66 | 1.05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92 | 1.12 | 0.64 | 0.524 |
| | 10년 이상 | 137 | 2.77 | 1.04 | | |
| 전 체 | | 162 | 2.80 | 1.05 | | |

*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39, p<.05$).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4)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참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이 전체 평균이 2.62로,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57 | 1.18 | -0.39 | 0.696 |
| | 여 | 101 | 2.64 | 0.9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2.85 | 1.08 | 2.00 | 0.048* |
| | 40세 이상 | 109 | 2.50 | 1.01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76 | 1.17 | 0.75 | 0.457 |
| | 10년 이상 | 137 | 2.59 | 1.02 | | |
| 전 체 | | 162 | 2.62 | 1.04 | | |

* $p<.05$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0, p<.05$). 교직 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5) 학부모의 학교재량활동 참여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와 같이 전체 평균이 2.93으로, 교사들은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학부모의 학교재량활동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93 | 1.24 | 0.08 | 0.940 |
| | 여 | 101 | 2.92 | 0.88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02 | 0.89 | 0.86 | 0.391 |
| | 40세 이상 | 109 | 2.88 | 1.09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21 | 0.78 | 1.27 | 0.211 |
| | 10년 이상 | 137 | 2.89 | 1.06 | | |
| 전 체 | | 162 | 2.93 | 1.03 | | |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학부모의 특별활동 참여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1로, 교사들은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부모의 특별활동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05 | 1.12 | 0.41 | 0.679 |
| | 여 | 101 | 2.98 | 0.97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21 | 1.01 | 1.76 | 0.081 |
| | 40세 이상 | 109 | 2.91 | 1.02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24 | 1.01 | 1.24 | 0.216 |
| | 10년 이상 | 137 | 2.96 | 1.03 | | |
| 전 체 | | 162 | 3.01 | 1.03 | | |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학부모의 교과용 도서 선정 참여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이 전체 평균이 2.65로,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8> 학부모의 교과용 도서 선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69 | 1.06 | 0.41 | 0.679 |
| | 여 | 101 | 2.62 | 0.90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2.83 | 0.96 | 1.69 | 0.093 |
| | 40세 이상 | 109 | 2.56 | 0.96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88 | 0.93 | 1.31 | 0.191 |
| | 10년 이상 | 137 | 2.61 | 0.97 | | |
| 전 체 | | 162 | 2.65 | 0.96 |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학부모의 교육자료 선정 참여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과 같이 전체 평균이 2.58로, 교사들은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1, p<.05$).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9> 학부모의 교육자료 선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66 | 1.09 | 0.74 | 0.458 |
| | 여 | 101 | 2.53 | 0.83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2.81 | 0.92 | 2.21 | 0.028* |
| | 40세 이상 | 109 | 2.47 | 0.93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76 | 0.83 | 1.04 | 0.299 |
| | 10년 이상 | 137 | 2.55 | 0.96 | | |
| 전 체 | | 162 | 2.58 | 0.94 | | |

*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9) 학부모의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와 같이 전체 평균이 3.22로, 교사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방과후 교

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0> 학부모의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23 | 1.13 | 0.07 | 0.944 |
| | 여 | 101 | 3.22 | 0.97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42 | 0.97 | 1.68 | 0.096 |
| | 40세 이상 | 109 | 3.13 | 1.05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44 | 0.96 | 1.15 | 0.250 |
| | 10년 이상 | 137 | 3.18 | 1.04 | | |
| 전 체 | | 162 | 3.22 | 1.03 |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학부모의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 참여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전체 평균이 3.19로, 교사들은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5, p<.05$).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 학부모의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08 | 1.17 | -0.98 | 0.327 |
| | 여 | 101 | 3.26 | 1.0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49 | 1.12 | 2.45 | 0.015* |
| | 40세 이상 | 109 | 3.05 | 1.07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56 | 1.04 | 1.83 | 0.068 |
| | 10년 이상 | 137 | 3.12 | 1.10 | | |
| 전 체 | | 162 | 3.19 | 1.10 | | |

*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11) 학부모의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2>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7
 로, 교사들은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
 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
 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2, p<.05$).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
 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7, p<.05$).

<표 IV-12> 학부모의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92 | 1.13 | -1.50 | 0.135 |
| | 여 | 101 | 3.17 | 0.9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34 | 0.96 | 2.32 | 0.022* |
| | 40세 이상 | 109 | 2.94 | 1.04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48 | 0.77 | 2.17 | 0.032* |
| | 10년 이상 | 137 | 3.00 | 1.05 | | |
| 전 체 | | 162 | 3.07 | 1.03 | | |

*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40세 미만인 교사와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12) 학부모의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 참여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와 같이 전체 평균이 3.14로, 교사들은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학부모의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00 | 1.03 | -1.36 | 0.175 |
| | 여 | 101 | 3.22 | 0.9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49 | 0.89 | 3.28 | 0.001** |
| | 40세 이상 | 109 | 2.96 | 0.99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56 | 0.71 | 2.37 | 0.019* |
| | 10년 이상 | 137 | 3.06 | 1.01 | | |
| 전 체 | | 162 | 3.14 | 0.99 | | |

* p<.05, ** p<.01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28, p<.01$).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7,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40세 미만인 교사와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13) 학부모의 초빙교원 임용시 참여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4>과 같이 전체 평균이 2.60으로, 교사들은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부모의 초빙교원 임용시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2.56 | 1.16 | -0.39 | 0.697 |
| | 여 | 101 | 2.62 | 0.98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2.81 | 1.04 | 1.81 | 0.072 |
| | 40세 이상 | 109 | 2.50 | 1.04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2.80 | 1.16 | 1.04 | 0.298 |
| | 10년 이상 | 137 | 2.56 | 1.03 | | |
| 전 체 | | 162 | 2.60 | 1.05 | | |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4) 학부모의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 참여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33으로, 교사들은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학부모의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31 | 1.06 | -0.22 | 0.829 |
| | 여 | 101 | 3.35 | 0.96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45 | 0.97 | 1.06 | 0.289 |
| | 40세 이상 | 109 | 3.28 | 1.01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52 | 1.05 | 1.02 | 0.310 |
| | 10년 이상 | 137 | 3.30 | 0.99 | | |
| 전 체 | | 162 | 3.33 | 1.00 | | |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5) 학부모의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 참여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6>와 같이 전체 평균이 3.23으로, 교사들은 학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6> 학부모의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15 | 1.15 | -0.82 | 0.416 |
| | 여 | 101 | 3.29 | 0.99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28 | 0.93 | 0.41 | 0.685 |
| | 40세 이상 | 109 | 3.21 | 1.11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32 | 0.99 | 0.44 | 0.661 |
| | 10년 이상 | 137 | 3.22 | 1.07 | | |
| 전 체 | | 162 | 3.23 | 1.06 |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6)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67로, 교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17>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67 | 1.04 | 0.06 | 0.955 |
| | 여 | 101 | 3.66 | 0.91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70 | 1.01 | 0.29 | 0.772 |
| | 40세 이상 | 109 | 3.65 | 0.94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76 | 1.01 | 0.53 | 0.598 |
| | 10년 이상 | 137 | 3.65 | 0.95 | | |
| 전 체 | | 162 | 3.67 | 0.96 |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7) 학부모의 교내 사고나 민원사항 처리 참여

교내 사고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24로, 교사들은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8> 학부모의 교내 사고나 민원사항 처리 참여

| 구 분 | | N | Mean | SD | t | p |
|------|--------|-----|------|------|------|-------|
| 성 별 | 남 | 61 | 3.38 | 1.00 | 1.34 | 0.182 |
| | 여 | 101 | 3.16 | 1.07 | | |
| 연 령 | 40세 미만 | 53 | 3.28 | 1.03 | 0.37 | 0.711 |
| | 40세 이상 | 109 | 3.22 | 1.00 | | |
| 교직경력 | 10년 미만 | 25 | 3.28 | 0.89 | 0.21 | 0.833 |
| | 10년 이상 | 137 | 3.23 | 1.03 | | |
| 전 체 | | 162 | 3.24 | 1.01 | | |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1)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와 같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 39.5%, 예산·회계담당자 7.4%, . 학교장 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

| 구 분 |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학교장 | 예산·회계담당자 | 기타 | 계 | X ² (df) | P |
|-------|--------|--------------|--------------|------------|-------------|-------------|----------------|------------------------|-------|
| 성별 | 남 | 26 (42.6) | 23 (37.7) | 4 (6.6) | 3 (4.9) | 5 (8.2) | 61 (37.7) | 2.08 (4) | 0.722 |
| | 여 | 42 (41.6) | 41 (40.6) | 4 (4.0) | 9 (8.9) | 5 (5.0) | 101 (62.3) | | |
| 연령 | 40세 미만 | 28 (52.8) | 20 (37.7) | 1 (1.9) | 3 (5.7) | 1 (1.9) | 53 (32.7) | 6.43 (4) | 0.169 |
| | 40세 이상 | 40 (36.7) | 44 (40.4) | 7 (6.4) | 9 (8.3) | 9 (8.3) | 109 (67.3) | | |
| 교직 경력 | 10년 미만 | 13 (52.0) | 10 (40.0) | - | 2 (8.0) | - | 25 (15.4) | 4.01 (4) | 0.405 |
| | 10년 이상 | 55 (40.1) | 54 (39.4) | 8 (5.8) | 10 (7.3) | 10 (7.3) | 137 (84.6) | | |
| 계 | | 68 (42.0) | 64 (39.5) | 8 (4.9) | 12 (7.4) | 10 (6.2) | 162 (100.0) | | |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40세 이상 교사는 40세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0>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장 21.6%,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8.5%,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

| 구 분 |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 계 | X ² (df) | p |
|----------|--------|----------------------|--------------|-----------------|-----------------|------------------------|----------------|------------------------|--------|
| 성별 | 남 | 15 (24.6) | 17 (27.9) | 6 (9.8) | 2 (3.3) | 21 (34.4) | 61 (37.7) | 10.77 (4) | 0.029* |
| | 여 | 15 (14.9) | 18 (17.8) | 19 (18.8) | - | 49 (48.5) | 101 (62.3) | | |
| 연령 | 40세 미만 | 9 (17.0) | 8 (15.1) | 12 (22.6) | - | 24 (45.3) | 53 (32.7) | 5.35 (4) | 0.253 |
| | 40세 이상 | 21 (19.3) | 27 (24.8) | 13 (11.9) | 2 (1.8) | 46 (42.2) | 109 (67.3) | | |
| 교직 경력 | 10년 미만 | 3 (12.0) | 3 (12.0) | 6 (24.0) | - | 13 (52.0) | 25 (15.4) | 4.24 (4) | 0.374 |
| | 10년 이상 | 27 (19.7) | 32 (23.4) | 19 (13.9) | 2 (1.5) | 57 (41.6) | 137 (84.6) | | |
| 계 | | 30 (18.5) | 35 (21.6) | 25 (15.4) | 2 (1.2) | 70 (43.2) | 162 (100.0) | | |

*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

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7$, $p<.05$).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고, 40대 이상 교사는 40대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고, 10년 이상 교사는 1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인식하였으며,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적임자라고 인식하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27.8%,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20.4%, 교육청의 지원 부족 5.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

주적이고 배타적 행태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이 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 구 분 | |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 교육청의 지원 부족 | 기타 | 계 | X ² (df) | p |
|-------|--------|--------------------------------|------------------------------------|-----------------------|-------------|-------------|----------------|---------------------|-------|
| 성별 | 남 | 16 (26.2) | 17 (27.9) | 19 (31.1) | 4 (6.6) | 5 (8.2) | 61 (37.7) | 6.54 (4) | 0.163 |
| | 여 | 17 (16.8) | 48 (47.5) | 26 (25.7) | 5 (5.0) | 5 (5.0) | 101 (62.3) | | |
| 연령 | 40세 미만 | 12 (22.6) | 24 (45.3) | 12 (22.6) | 4 (7.5) | 1 (1.9) | 53 (32.7) | 4.38 (4) | 0.357 |
| | 40세 이상 | 21 (19.3) | 41 (37.6) | 33 (30.3) | 5 (4.6) | 9 (8.3) | 109 (67.3) | | |
| 교직 경력 | 10년 미만 | 5 (20.0) | 11 (44.0) | 5 (20.0) | 3 (12.0) | 1 (4.0) | 25 (15.4) | 3.19 (4) | 0.526 |
| | 10년 이상 | 28 (20.4) | 54 (39.4) | 40 (29.2) | 6 (4.4) | 9 (6.6) | 137 (84.6) | | |
| 계 | | 33 (20.4) | 65 (40.1) | 45 (27.8) | 9 (5.6) | 10 (6.2) | 162 (100.0) | | |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40세 이상 교사는 40세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이 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 및 교육청의 지원 부족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10년 이상 교사는 1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이 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종합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1) 학칙 제정·개정 참여에 대한 인식

학칙 제정·개정에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 연령별, 경력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사들은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예산·결산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 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 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 예산·결산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와 10년 이상 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학교 예산·결산에 대해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 볼 때, 학교 재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학교 재정 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산의 편성에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3)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 성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즉 40세 미만 교사의 젊은 층의 교사는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상의 비교적 연령이 많은 교사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사들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나,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교직경력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찬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에 교육의 수

해자인 학부모의 참여, 즉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은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 교직경력별로는 40세 미만 교사와 10년 미만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40세 이상 교사나 10년 이상 교사들 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교사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교사들은 제한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학부모가 참여하여 오히려 학교 경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는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5) 학교재량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학부모 참여에 대해 그다지 찬성하지 않았으며, 40세 미만 교사와 10년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와 10년 이상 교사 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 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부정적 견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재량활동은 전문적인 분야로 학교 고유 권한으로 보고 학교 재량활동 운영에 신

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해석되며, 앞으로는 교과외 전문성을 살리면서 아울러 학부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

(6)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은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고,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특별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보며, 학부모들과 학교가 아직 학부모 참여에 익숙하지 못하고, 참여 방법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참여 방식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해 주었다.

(7) 교과용 도서 선정 참여에 대한 인식

교과용 도서 선정에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견해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서 선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적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또 교과용 도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여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 권한과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8) 교육자료 선정 참여에 대한 인식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로는 남자 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별 차이는 아니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교직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교육자료 선정의 학부모 참여에 대한 견해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육자료 선정에 전문적 지식이 적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9)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방과후 교육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교육활동 종류, 방법 등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0)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

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등의 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살펴볼 때 교사들은 수학 여행 장소, 일정, 경비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학교 정규 활동 이외에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11)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40세 미만 교사인 경우는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상당수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상 교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직경력별에 있어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교직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40세 미만인 교사와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해 학부모 참여에 대해 상당수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것은 방학 중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2)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 참여에 대한 인식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성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 경력별에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40세 미만 교사와 교직경력 10년 미만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학부모 참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상 교사와 10년 이상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학교 당국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 운영 참여는 오히려 학교 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13) 초빙교원 임용시 참여에 대한 인식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당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관리 능력이 없는 학부모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초빙교원 임용 문제는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4)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성별과 연령, 그

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 상당수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정규 활동이외에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활동으로 생각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15)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평균값=3.23으로 교사들은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나타났다.

(16)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체 평균이 3.67로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별,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 교내 사고나 민원 사항 처리 참여에 대한 인식

교내 사고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학부모 참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전체 평균이 3.24로 학부모 참여에 대해 상당수가 긍정적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 참여에 대해 찬성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은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에 있어서 모두 교내 사고나 학교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1)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 39.5%, 예산·회계담당자 7.4%, 학교장 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40세 이상 교사는 40세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

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처럼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책임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책임자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책임자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장 21.6%,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8.5%,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1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고, 여자교사는 남자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교사가 40세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고, 40세 이상 교사는 40세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고, 10년 이상 교사는 10년 미만 교사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교장이 책임자라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

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인식하였으며, 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 학부모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학교와 협력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적임자로 생각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27.8%,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20.4%, 교육청의 지원 부족 5.6% 순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별, 그리고 교직경력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해 본다면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과정 관리에 있어서 방과후 활동이나 특별활동 등 정규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연령별, 경력별로는 다소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용 등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교 운영시 학부모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문헌고찰과 조사연구를 병행한 결과 하위 영역별로 얻어진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칙 제정·개정예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교사가 상호 보완적 작용과 역할 수행에 지혜와 의견을 결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결산안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하여 성별, 연령별, 경력별로 견해 차이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학교제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열린 학교 운영으로 학교 행정을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학부모가 참여한다는데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알찬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분야에서는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 식견이 높은 학교 권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 모두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문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 일임하여야 하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효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재량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특별활동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부모 참여에 신중을 기하고 학교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운영에는 교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

교과용 도서 선정이나 교육자료 선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에 상당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과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을 높이고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 교육 활동 종류, 시기, 방법 결정 과정에 관하여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교사 모두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활동이외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갖게 하므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교사와 학부모는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여행 장소, 일정, 경비 와 방학 중 교육활동 목표, 종류 등의 결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은 상당수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이 영역은 직접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방학 중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함으로써 학교행사를 원활하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될 것이다.

각종 학생 수련활동 제반 사항 결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교사들의 인식

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직접 결정 사항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학교 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 영역은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중요성 때문으로 생각되면, 초빙교원의 임용 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관리 능력이 없는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 교육 방법 결정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지역사회 교육 방법을 좀 더 연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에 이바지하고 신뢰받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결정 과정에 학부모 참여에 있어서는 교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에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실제 경비를 지원하거나 결정하는 등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이므로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교 운영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되므로 학교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내사고나 학교 민원사항 발생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에 교육적 수혜자와 직접 관계 있는 분야에는 참여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이러한 영역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하는데 대해서 교사의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그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하여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본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임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교사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장애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서 학교 운영에 학부모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을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분석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에 따라서는 학부모 참여에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분야도 있었다. 특히 학부모가 교육 경비를 결정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등 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분야의 학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학교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며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공해 주고 학부모들도 학교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부모의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넓혀서 열린 학교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화 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부모 역시 학교 운영에 지나친 참여와 간섭은 학교 운영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대한 권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참여와 지원을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끝으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활동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들은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분석 논의 및 요약을 토대로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참여에 교사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일부를 학부모가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학교 운영 참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인식은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는데, 상당히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지나친 참여나 간섭은 학교 운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있어서는 내용, 범위, 정도 등에서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운영에 있어서 보다 민주화, 투명화 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예산 결산을 집행할 때 열린 학교 운영으로 학교 운영을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학부모들도 학교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또 지역의 특수성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 조사 등을 통하여 특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방과 후 교육 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특성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다섯째,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활동은 학생의 교육지도나 학교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홍보와 학부모의 역할을 위한 학부모 사전 교육제도와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보다 손쉽게 부담없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활동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되어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들은 학부모의 활발한 학교 운영 참여를 통해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힘 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법전 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2001.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 을지문화사, 1996.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1998.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1996.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1997.
- 경기도교육청, 열린 시대 열린 학교 운영, 장학자료, 1998.
- 김민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영하,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 지원체제 조성,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김은희, 「국민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인길,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인희,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서울 : 문음사, 1993.
- 김종철, 한국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 김홍주, 학교운영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풀뿌리 교육자치문화의 형성,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연수자료(장학자료 '98-8), 경기도 교육청, 1998.
- 손준기, 「학부모의 학교 경영 참여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불휘, 「제자리를 찾아야 할 육성회」, 우리교육 6월호, 1990.
- 백종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2000.

- 서정화·박철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중심 책임경영제 활성화 방안」, 홍익대학교 교육연구 논문집(13), 1996.
- 염철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유현숙,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그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교육월보, 통권 159호, 1995.
- 유현숙 외,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시범위원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6-8, 1995.
- 윤정일, 교육행정학, 서울 : 세영사, 1999.
- 이세용, 학부모-교사 파트너쉽 연구,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 정신 건강연구소, 2001.
- 이순형,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30권 제2호.
- 유현숙, 정태화,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경영 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8.
- 이영엽,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집단의 시대수준과 수행 수준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이진분,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에 대한 제언」, 새교육, 7월호, 1991.
- 임연기 외,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이충원, 외국의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충북교육위원회 토론 자료, 2000.
- 정태범, 교육행정학, 서울:정민사, 1996.
- 정태범,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 모형」, 교육진흥, 통권29호, 1995.
-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연구, 199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Outlook of Teachers on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Management through School Board

Choi Ja-ya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 He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courage parents to direct their energy into school education, take part in school management and join in teaching students in an effort to improve school performance and parents' consciousness of being involved in school education. As one of the primary parties concerned to school education, parents should be involved in education, and concerted efforts by school and parents could contribute to normalizing school education, boosting its efficiency and running school in a more democratic manner.

To find out the opinions of teachers on how parents could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through school boards and in which way school boards should be run,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nd a research study were conducted. Specifically, it's attempted to look into how school and parents should join forces in realizing school-based manageme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Gyeongju and Pohang. Their view of parent involvement in every matter related to school operation was investigated by career, gender and age. As a result, it's found that most of the teachers investigated didn't find it advisable for parents to be involved in school management, but they looked at it positively in conjunction with some parts of school operation. In particular, a great number of the teachers thought that parents could participate in matters directly related to

clients of education, like what requires a payment from parents or what calls for their decision making in association with educational expenses. But they didn't have a positive opinion on parent involvement in some fields that needed professional knowledge, such as curriculum management. The reason seemed that the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school operation and fear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who lacked expertise might have an adverse impact on students who were entitled to receive quality education. However, the way they looked at parent involvement should change. Parents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take part in overall school management in diverse ways, and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m. Parents should be responsible for school management, and should be involved in it in a rational manner. To make it happen, teachers should view parent involvement positively and embrace it, and there should be diverse routes for parents to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so that school could be run in an open manner. The way to operate school should become more democratic and transparent, and the focus of school management should be placed on improving the abilities of students and offering higher-quality education. Parents should be careful not to overly step into school operation, as excessive intervention might end up deteriorating school performance, and they should lend assistance to school while claiming their children's right to learn. Parent involvement in school operation is one of the vital issues, since it could raise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When they are involved in school management, they wi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it as they can find out how it works in person. Therefore, teachers should do their utmost to boost the effect of education by urging parents to take more part in school operation and beefing up their collaboration with parents.

부 록(설문지)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에 대한 설문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설문 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요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조사하여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정성껏 답해 주시면 본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 결과는 연구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최 자 양 드림

※ 다음 사항은 설문통계를 위한 배경요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___ ① 남 ___ ② 여
2. 연령 : ___ ① 30세 미만 ___ ② 30세이상 40세 미만
___ ③ 40세 이상
3. 교직경력 : ___ ① 10년 미만 ___ ② 10년 이상

★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문 항 번 호 | 설문내용 | 적극 찬성 | 찬 성 | 보 통 | 반 대 | 적극 반대 |
|------------------|--|----------|--------|--------|--------|----------|
| | | 5 | 4 | 3 | 2 | 1 |
| 1 | 학칙 제정 · 개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2 | 학교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3 | 학교교육계획 수립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4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5 | 학교재량활동 관련사항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6 | 특별활동(자치,적응,계발,봉사,행사)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7 | 교과용 도서 선정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8 | 교육자료 선정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9 | 방과후 교육활동의 종류,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0 | 소풍이나 수학여행의 장소, 일정, 경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문 항 번 호 | 설문내용 | 적극 찬성 | 찬 성 | 보 통 | 반 대 | 적극 반대 |
|------------------|---|----------|--------|--------|--------|----------|
| | | 5 | 4 | 3 | 2 | 1 |
| 11 | 방학 중 교육활동의 목표, 종류,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2 | 각종 학생 수련활동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3 | 초빙교원 임용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4 | 지역사회 교육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5 |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과 관련한 결정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6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17 | 교내 사고나 학교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18.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운영위원회
- 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 ③ 학교장
- ④ 예산·회계담당자
- ⑤ 기타

1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② 학교장
- ③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 ④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2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비민주적이고 배타적 행태
- ② 학교운영위원장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부족과 비판적 시각
- ③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참여의지 부족
- ④ 교육청의 지원부족
- ⑤ 기타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